



이런 과학자, 저런 기술자

## 전쟁터의 '성의(聖醫)'

# 지노 스트라다

*Gino Strada*

‘살아있는 전설 - 외과 전문의사’ 지노 스트라다

세계의 분쟁지역에는 어김없이 나타나 민간인들에게 아무 보수도 없이 인술을 베푸는 의사가 있다. 아프가니스탄, 캄보디아, 페루, 보스니아, 지부티, 소말리아, 이집트, 르완다 그리고 북부 이라크 등 세계 도처의 전쟁터에서 지뢰를 밟아 사경을 헤매다가 그의 인술로 목숨을 건진 민간인은 수만을 헤아린다. ‘살아있는 전설적인 인물’로 불리는 이탈리아 출신 외과 전문의 지노 스트라다(Gino Strada)는 오늘도 아프가니스탄 오지에서 작지만 서구수준의 깨끗한 병원을 차려놓고 온 몸을 던져 전화에 찌든 사람들을 돌보고 있다.

### 꽃꽂이 자세

스트라다가 의료진을 이끌고 아프가니스탄 전쟁터를 찾은 것은 1999년이였다. 그의 일행은 이웃나라 타지키스탄의 두산베에서 낡은 헬리콥터를 이용하여 북부 아프가니스탄으로 들어

온 뒤 트럭을 타고 카불에서 60km 떨어진 아나바에 자리잡았다. 이들은 버려진 구(舊) 경찰대학을 탄약상자 등으로 개수하여 70명의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이머전시(Emergency)’ 병원을

차렸다. 규모는 작지만 응급실, 방사선실, 산소공급 등 완전한 장비를 갖춘 2개의 수술실, 임상검사실, 멸균소독기, 혈액은행, 중환자실 그리고 4개의 외과병실 등을 고루 갖추고 사실상 북부 아프가니스탄에서 유일한 현대 의학장비를 가진 병원이다. 1999년 12월 개원한 이래 이 병원은 8천4백명의 환자를 치료했는데 대부분은 지뢰와 폭탄의 희생자들이였다. 2001년 가을 영미공군이 폭격을 개시한 이래 대부분의 국제구호단체들이 아프가니스탄을 떠났으나 ‘이머전시’ 병원은 꽃꽂이처럼 남아 진료를 계속하면서 산부인과, 소아과, 안과를 새로 두면서 확장할 계획이다. 스트라다를 비롯하여 ‘이머전시’ 병원 직원들은 어떤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꽃꽂이처럼 인술을 지키고 있다. 2001년 5월에는 탈리반정부의 관리들이 병원으로 쳐들어와서 남녀직원들이 함께 식사하는 것을 닦하고 가죽채찍으로 직원들을 매질하려고 했으나

이 병원의 의학조정관인 웨일즈출신 간호사 케이트 로울랜드(45)는 이들과 용감하게 맞섰다. 카불정권은 ‘이머전시’ 병원이 카불정부 보건부의 규정을 위반하여 남녀가 함께 식사한다고 비난하면서 이들의 안전을 보장하기를 거절하자 스트라다는 병원 문을 닫아버렸다. 문제는 모든 외국인과 이교도를 죽이겠다는 알카에다를 포함하여 적어도 20개국에서 온 비(非)아프가니스탄계 전투원들의 위협이었다. 이런 험악한 상황에서 스트라다는 2001년 11월 탈리반이 수도 카불을 버릴 때까지 병원 문을 다시 열기 위해 여러 번에 걸쳐 목숨을 건 카불 나들이를 했다.

### 살 길도 열어주고

1948년 이탈리아 밀라노대학 의과대학을 나온 스트라다는 심장 폐장 외과 의로서 한때는 화려한 미래를 기대할 수 있는 처지에 있었다. 그는 미국으로 건너가 스탠퍼드대학과 피츠버그대학의 초빙 외과의로 근무하기도 했다. 그러나 1988년 개발도상국의 의료를 직접 체험하기로 결심함으로써 그의 일생은 완전히 바뀌었다. 적십자사 국제위원회와 5년 계약을 맺은 그는 캄보디아 피난민촌을 포함한 여러 곳을 전전하면서 의료봉사를 했으나 보다

**이탈리아 출신 외과 전문의사인 지노 스트라다는  
세계의 전쟁터만 찾아다니며 민간인들에게 무료 인술을 베푼다.  
오늘도 그는 아프가니스탄의 오지에서 작지만 깨끗한 병원을 차려놓고  
온몸을 던져 전화에 찌든 사람들을 돌보고 있다는데...**

좋은 질의 의료를 제공하기 위해 부인 테레사와 친구들의 도움으로 민간의료 봉사기구인 '이머전시'를 설립했다. '민간 전쟁희생자를 위한 생명지원'이라는 모토를 내건 이 기구는 지난 6년 반 동안 이탈리아 직업축구단을 포함한 민간후원자와 이탈리아 외무부 및 유럽 인도주의 원조국 등으로부터 1천 6백만달러의 지원을 받아 아프가니스탄만 아니라 이라크, 캄보디아, 시에라레온 등지에서도 '이머전시'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전시의 응급의사는 언제나 안팎으로 위기에 노출되기 마련이다. 1996년 스트라다는 사담 후세인의 군대가 쿠르드족을 공격하기 시작할 때 북부 이라크의 '이머전시' 병원을 운영하고 있었다. 그러나 쏟아져 들어오는 부상자들을 치료하기 위해 날마다 18시간을 근무하다 마침내 과로 때문에 심장마비로 쓰러지고 말았다. 그는 터키 국경까지 4백km를 실려간 뒤 이탈리아 외무부가 보낸 비행기로 본국으로 옮겨져 바이패스 수술을 받아 간신히 생명을 건졌다.

20세기 말의 모든 전쟁터를 겪어 본 베테랑 외과의 스트라다는 특별히 전쟁의학에 초점을 둔 교과과정을 만들겠다는 꿈에 부풀어 있다. 오늘날 의학도들은 응급수술 훈련을 받고 있

나 일선의 한정된 자원으로 수술할 준비는 되어있지 않다. 예컨대 의사가 생존기회를 바탕으로 어떤 환자를 수술할까 선별해야 하는 경우 부상자를 분류하는 뉘앙스를 가르칠 필요가 있다. 전쟁터에서는 생존기회가 더 많은 사람이 죽어 가는데 생존할 가망이 거의 없는 사람을 수술하느라 3시간이나 소비할 수 없다는 것이 스트라다의 주장이다. 그는 서방 의료인들이 구조사업을 착수하기 전에 새로운 진료소를 건설하는 방법을 포함하여 광범위한 기술훈련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전쟁의학만 아니라 물류, 통신 및 정보, 장시간 긴장 아래 일할 수 있는 능력, 팀워크, 규율 그리고 안전문제까지 배워주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식의 집중적인 교육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머전시'의 목표의 하나는 저개발 국가에 병원을 유지하는 한편 현지의 의료교육도 함께 베푼다는 것이다. 스트라다는 동료 의료요원들과 함께 현지 의사, 의료종사자 그리고 행정요원들에게 현대식 병원시설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기술을 가르치고 있다. 아프가니스탄 소재 '이머전시' 병원과 구급소는 현재 2백여명의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고 일부 의사와 간호사들은 북부 이라크에서

'이머전시' 병원의 훈련을 받은 뒤 아나바로 온 쿠르드인들이다. 또 병원의 주방요원과 보수요원 중에는 지뢰와 유산탄으로 중상을 입은 환자 출신이 많다. 스트라다는 이들이 아프가니스탄 사회에서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병원에 고용하는 것 뿐이며 또 현지인을 고용하고 현지에서 물자를 조달하면 비용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말하고 있다. 22년간 전화에 시달려 사회 하부구조가 완전히 붕괴된 나라에서는 의료봉사를 사회원조계획과 분리할 수 없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그래서 '이머전시' 병원은 현지의 미망인과 가족들을 위한 사회프로그램을 착수하는 한편 이웃 판즈시르계곡에 소규모 수력발전소를 건설하여 이 지역에 처음으로 전기를 공급하기 시작했다. '전쟁이 빛을 꺼버렸다면 전쟁에 시달린 사람들에게는 간단한 전구 한개가 평화의 작은 상징으로 비칠 수 있다'는 것이 스트라다의 생각이다. 전쟁터의 경험을 기록한 그의 저서 「녹색 앵무새 (Pappagalli Verdi)」(어느 지뢰의 별명)는 1999년 출판된 이래 이탈리아에서는 베스트셀러가 되어 11만부 이상이 팔렸다. 부인 테레사 사이에 외동딸을 두었다. ⑤

玄 源 福 <과학저널리스트/본지 편집위원>